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웰다잉 인식,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 및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상영^{1*}

¹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Well-dying, Change to Attitude toward the Old and Meaning of life through Hospice Education Program of Care Worker Trainees

Sang-Young Han^{1*}

¹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웰다잉 인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의미의 변화를 검증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유사 실험 설계 중 단일군 사전·사후설계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 9월11일부터 10월21일까지이며, 연구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총 80명으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호스피스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자이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 보다 실시한 후가 웰다잉 인식과 삶의 의미,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질적으로 우수한 노인요양보호의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과 호스피스 프로그램 개발의 질적 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cognition of well-dying, change to attitude toward the old and meaning of life through pre/post hospice education program of care worker trainees. This study is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using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80 care worker trainees in T city and S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7.0 program.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recognition of well-dying, The attitude toward the old and meaning of lif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post program. This study is need systematic and continuousness of hospice education program for curriculum change to attitude toward the old and improvement of care worker.

Key Words : Well-dying, Attitude toward the Old, Meaning of Lif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학의 발달과 경제 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것은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장기 치료와 요양을 하는 노인의 증가도 늘어나고 있다[1].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2]. 현재는 노인을 신체수발하며 일상생활을

*Corresponding Author : Sang-Young Han

Tel: +82-10-8304-7106 email: laurabest@hanmail.net

접수일 12년 09월 28일

수정일 12년 10월 09일

게재확정일 12년 10월 11일

지원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노인요양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3].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적 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요양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의 질, 직무만족과 삶의 의미에도 영향을 주므로 중요할 것이다[4]. 아울러 노인들의 삶의 중점을 돌보고 간호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5]. 특히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의 노인들은 병적 질환에 시달리고 남아있는 자신의 미래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정립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6].

최근 죽음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의미 있게 맞을 수 있는 품위 있는 죽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7].

특히 노인복지관련 시설에서 기거하는 노인들은 무의탁, 저소득층의 고령 노인이 주로이며 그들은 임종에 다가갈 때까지 돌보는 가족이 없다는 점과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노인을 계속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볼 때 호스피스는 환자로 하여금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설의 노인들은 자신의 복지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호스피스는 더욱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설에 기거하는 노인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 노인에 대한 호스피스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8]에 따르면 노인을 돌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죽음과 호스피스간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정립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인 말기환자의 임종 간호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신체수발과 일상생활을 돌보는 인력으로 노인의 임종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과 함께 올바른 호스피스 간호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노인 요양에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필요성, 효과 등에 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태도 변화와 웰다잉(Well-Dying) 인식변화를 파악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분석하여, 추후 요양보호사 교육내용과 호스피스 프로그램 개발의 질적 관리와 지속적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전·후 웰다잉(Well-Dying) 인식변화와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의미를 검증함으로써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이 웰다잉(Well-Dying) 인식변화를 분석한다.
- 2)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를 분석한다.

1.3 연구 가설

- 1)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2)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좋아질 것이다.
- 3)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삶의 의미가 높아질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 전과 후에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웰다잉(Well-Dying) 인식변화 및 삶의 의미정도를 비교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1년 0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T시

의 K대학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40명과 S시에 위치한 사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40명 모두 80명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 1)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2) 질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 3)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자.

실험군은 T시의 대학 요양보호사 교육생 40명이고, 대조군은 S시의 사설 요양보호사 교육생 40명으로서 T시와 S시는 거리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군, 대조군의 배정은 적합성이 높은 편이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직업, 교육, 결혼정도, 종교 유무, 경제수준 등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은 Sanders 외[9]이 개발한 의미분별척도를 임영신[10]이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 7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5$ 이다.

2.3.3 웰다잉(Well-Dying) 인식

웰다잉(Well-Dying)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로 송세현(2010)[7]이 총 21개 문항 5점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4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내용

호스피스 완화치료(2001)를 근거로 하여 호스피스 교육목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철학적, 개념적 기틀,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호스피스 교육내용은 하루 2시간씩 1주일에 2회씩 교육하였다. 총 교육기간은 4주였으며, 교육주제는 호스피스의 개요(1시간) 및 윤리(1시간), 가족관리(1시간), 신체적 관리(7시간) 중 통증관리, 증상관리, 기본 신체 관리, 간호 제공, 임종간호, 심리적 관리(2시간), 사별관리(1시간), 영적 관리(1시간), 봉사자의 역할(2시간) 등 총 16시간 이었다. 학습방법은 강의 및 시범, 시청각자료, 사례 들기, 유사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대조군은 호스피스 개요와 윤

리, 봉사자의 역할, 임종간호로만 교육을 실시하였다.

2.3.5 삶의 의미

본 연구는 김명숙[5]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은 ‘삶의 허무’, 9문항, ‘삶의 재미’, 4문항, ‘자기 결정감’, 4문항, ‘죽음의 준비’, 3문항의 총 4점 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매우 그렇다’에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다.

2.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요양보호사교육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직후 본 연구의 목적, 설문내용, 도구의 특성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지에 서명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은 후 교육 전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1년 10월 21일로 교육이 끝난 후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전·후 노인에 대한 태도, 웰다잉(Well-Dying) 인식을 paired t-test,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1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40명으로 총 80명이었다. 성별 분포로는 여자가 68명(85.0%)로 남자보다 많았고, 나이는 40대와 50대가 대부분이었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한 달 수입이 5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이 40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19명(23.8%), 50만원 미만 13명(16.2%), 150만원이

상 8명(10.0%)순이었다. 교육정도는 중졸과 고졸이 각각 29명(36.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70명(87.5%)으로 미혼보다 많았다. 부모를 봉양했던 경험으로는 없다가 69명(86.2%)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사별한 경험은 없다가 49명(61.2%)이었다.

이상으로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3.1.2 두 집단 간의 웰다잉,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의미에 대한 가설 검증

1) 제1가설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교육을 실시한 실험군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한 달 동안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웰다잉 인식에서 실험군은 사전 2.45점에서 사후 4.98점으로 평균 2.52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2.21점에서 2.40점으로 평균 0.19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56, p=.000$) [Table 2].

따라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웰다잉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2) 제2가설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좋아질 것이다.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의 변화를 보면 실험군은 사전 3.65점에서 사후 2.32점으로 차이는 1.33점이 감소하였

[표 1]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 Variable | Categories | (N=80) | | | x ² | p |
|---------------------------------|--------------------|---------------------|-------------------------|--------------------------|----------------|------|
| | | Total(n=80) n(%) | Exp.group(n=40) N(%) | Cont.group(n=40) n(%) | | |
| Gender | man | 12(15.0) | 9(22.5) | 3(7.5) | .942 | .332 |
| | woman | 68(85.0) | 31(77.5) | 37(92.5) | | |
| Age(yr) | 30s | 12(15.0) | 8(20.0) | 4(10.0) | 7.640 | .571 |
| | 40s | 31(38.8) | 16(40.0) | 15(37.5) | | |
| | 50s | 34(42.5) | 15(37.5) | 19(47.5) | | |
| | 60s | 3(3.7) | 1(2.5) | 2(5.0) | | |
| Monthly income (million won) | less than 500 | 13(16.2) | 7(17.5) | 6(15.0) | 7.573 | .578 |
| | 500 - 1,000 | 40(50.0) | 18(45.0) | 22(55.0) | | |
| | 1,000- 1,500 | 19(23.8) | 13(32.5) | 6(15.0) | | |
| | more than 1,500 | 8(10.0) | 2(5.0) | 6(15.0) | | |
| Education | under elementary | 6(7.5) | 3(7.5) | 3(7.5) | 23.775 | .095 |
| | graduate middle S. | 29(36.3) | 12(30.0) | 17(42.5) | | |
| | graduate high S. | 29(36.3) | 16(40.0) | 13(32.5) | | |
| | upper college | 13(16.2) | 8(20.0) | 5(12.5) | | |
| | no education | 3(3.7) | 1(2.5) | 2(5.0) | | |
| Marital Status | married | 70(87.5) | 35(87.5) | 35(87.5) | .294 | .588 |
| | not married | 10(12.5) | 5(12.5) | 5(12.5) | | |
| Supporting parents | yes | 11(13.8) | 6(15.0) | 5(12.5) | .112 | .738 |
| | no | 69(86.2) | 34(85.0) | 35(87.5) | | |
| Bereavement | experience | 31(38.8) | 14(35.0) | 17(42.5) | 3.913 | .092 |
| | not experience | 49(61.2) | 26(65.0) | 23(57.5) | | |

[표 2] 두 집단 간의 웰다잉에 대한 가설 검증

[Table 2] Comparison of perception about Well-dying before and after

| Variables | (N=80) | | | t | p | |
|---------------------------|----------------|---------------|--------------------|-----------|--------|------|
| | Before M±SD | After M±SD | Difference M±SD | | | |
| Recognition of Well-dying | Exp.group | 2.45±.31 | 4.98±.56 | -2.53±.58 | -27.56 | .000 |
| | Cont.group | 2.21±.28 | 2.40±.52 | -0.19±.39 | | |

Exp.=Experimental, Cont.=Control

[표 3] 두 집단 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가설 검증

[Table 3] Comparison of perception about change to attitude toward the old before and after

| Variables | | | | | (N=80) | |
|-----------|------------|----------------|---------------|--------------------|--------|------|
| | | Before M±SD | After M±SD | Difference M±SD | t | p |
| Attitude | Exp.group | 3.65±.59 | 2.32±.66 | 1.33±.66 | 12.71 | .000 |
| | Cont.group | 3.75±.67 | 3.62±.39 | 0.13±.43 | | |

Exp.=Experimental, Cont.=Control

[표 4] 두 집단 간의 삶의 의미에 대한 가설 검증

[Table 4] Comparison of Perception about Meaning of Life Before and After

| Variables | | | | | (N=80) | |
|-----------------|------------|----------------|---------------|--------------------|--------|------|
| | | Before M±SD | After M±SD | Difference M±SD | t | p |
| Meaning of Life | Exp.group | 2.58±.25 | 3.35±.12 | -0.77±.28 | -17.34 | .000 |
| | Cont.group | 2.50±.21 | 2.48±.19 | 0.02±.26 | | |

Exp.=Experimental, Cont.=Control

고, 대조군은 3.75점에서 3.62점으로 0.13점 차이로 감소하였다. 두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2.71$, $p=.000$)[Table 3].

따라서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3) 제3가설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삶의 의미가 높아질 것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변화를 보면, 실험군이 2.58점에서 3.35점으로 0.77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2.50점에서 2.48점으로 근소한 0.02점이 증가하여 두 집단의 삶의 의미에 대한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7.34$, $p=.000$)[Table 4].

따라서 삶의 의미에 대한 제3가설은 지지되었다.

3.3 대상자의 삶의 의미 비교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 대상자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평균 점수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하기 전 45.97점, 실시한 후 61.84점 ($t=3.483$, $p=.005$)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가 삶의 의미에 대한 점수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삶의 의미에 있어서 유의한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삶의 허무'($t=5.473$, $p=.023$), '삶의 기쁨'($t=6.656$, $p=.011$), '자기 결정감'($t=7.428$, $p=.008$)의 3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삶의 의미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Meaning of Life Before and After

| Variables | | | t(p) |
|----------------------|----------------|---------------|-------------|
| | Before M±SD | After M±SD | |
| Meaning of Life | 45.97(7.45) | 61.84(7.59) | 3.483(.005) |
| Nihilism of Life | 24.35(3.56) | 27.45(3.72) | 5.473(.023) |
| Pleasure of Life | 11.36(1.12) | 12.67(1.23) | 6.656(.011) |
| Decision of Self | 10.25(1.45) | 12.74(1.37) | 7.428(.008) |
| Preparation of Death | 8.32(1.32) | 8.98(1.27) | 2.134(.143) |

4.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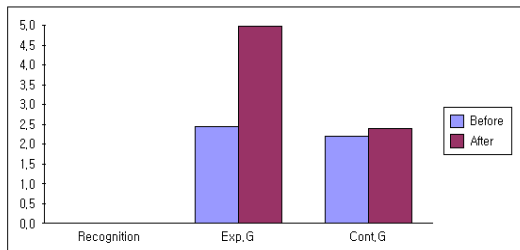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에 웰다잉(Well-Dying) 인식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가 실시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11]의 결과와 같다. 이것은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교육과 홍보 전략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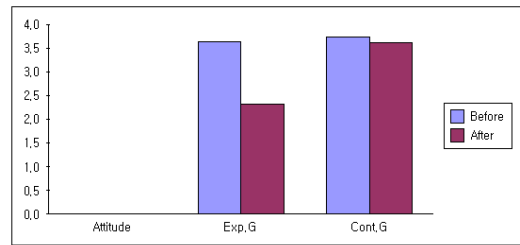
다. 특히 임종 말기 혹은 임종을 앞둔 노인들의 호스피스 서비스와 노인의 대부분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3.92점보다 실시한 후가 4.02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증가 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2]의 연구에서도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실시한 후가 점수는 더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가정봉사원이 노인을 대상으로 수년간의 봉사를 한 후 설문 조사를 한 [13]의 연구결과는 노인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장기간의 많은 시간을 노인과의 교감을 형성하여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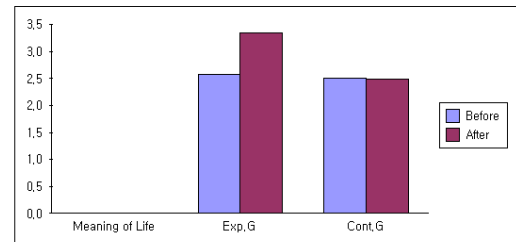
대상자들의 삶의 의미는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위 영역별로 삶의 허무, 삶의 재미, 자기 결정감, 죽음의 준비 등 4개의 영역으로 분류했을 때 죽음의 준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1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에 대한 하위 영역별로 분류한 것 중 죽음의 준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의미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14], 이는 삶을 마감하는 시기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암, 그리고 가족들이 받는 죽음과 고통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인생을 회상하면서 자기성찰을 통해 삶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웰다잉 인식 비교 도표
[Fig. 1] Recognition of Well-dying



[그림 2]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 도표
[Fig. 2] Attitude toward the old



[그림 3] 삶의 의미 비교 도표
[Fig. 3] Meaning of Life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웰다잉 인식, 노인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에 대한 변화를 검정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유사 실험 설계 중 단일군 전·후설계이다. 연구 대상자는 T시의 K대학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40명과 S시에 위치한 사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40명으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호스피스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자이다.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웰다잉 인식도,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 삶의 의미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 보다 실시한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적으로 향상된 노인요양보호의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그룹을 편성한 후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할 수 있는 유사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웰다잉 인식, 노인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죽음을 생의 마지막 발달단계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Yoon, E. G.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Hospice Service in Nursing Home,"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Vol.15, pp.91-120, 2002.
- [2] Lee, K. J. "Factors Affecting Service Quality of Care Helpers Working for Nursing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 gu Haany University, 2011.
- [3] Kim, J. Y.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Aged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 Ji University, 2009.
- [4] Lee, C. J.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Old Adult General Hospital and Geriatric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2003.
- [5] Kim M. S., "Comparison on the Perception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6] Kim, E. M. "A Study on t he Attitudes toward the Death and Dying of The Aged, - focused on Catholic Church older member's of Suwo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 nam University, 2001.
- [7] Song S. H., "Recognition of preparation for death and well-dying of Won-Buddhi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0.
- [8] Park, G. S. "The education and achievement on the present condition of hospice nursing of the nurses who work in the Geriatric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7.
- [9]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 F., & Balkwell, C. "Youth's attitude towards the edlerly", Journal Appli Gerontol, Vol1, pp. 59-70, 1984.
- [10] Lim, Y. 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2.
- [11] Kim, M. S. "Comparison on the Perception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12] Kim, H. K., Cho, K. J., lee, H. J.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Certified Caregiv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 Nursing, Vol. 11, No.1, pp.62-70, 2009.
- [13] Ha, S. H., "A Study on Knowledge of Elderly Health Car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Home Help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14] Lee, Y. M., "A Study on the Meaning of life, Change to Attitude toward the Old and Hospice Perception through Hospice Education Program of Care Worker Traine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pp.642-647, 2012.

한 상 영(Sang-Young Han)

[정회원]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 아동간호, 노인간호